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8.07 [21~23]

“아부제…….”

나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강릉에서 올라올 때부터 내내 입속으로 되뇌며 연습한 말이었다.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라는 뜻을 불러야 하고, 이젠 당숙을 그렇게 불러야 하고 그렇게 불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아부제가 놀라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부제…….”

㉠ “…….”

“지가 잘못했어요.”

“언, 언제 완?”

“어제요. 어머니가 아부제 모시고 오라고 해서요.”

“…… 밥은 먹은?”

“야, 내일 온다더니요?”

“여게서 들어오는 사람 편에 니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잔.”

“진지는 드셨어요?”

“거게서 먹기는 해두 니가 뭘 안 먹었음 같이 먹을라구…….”

“말은요?”

“뒤결에 매났는기 이젠 그것두 힘을 못 써서…….”

“아부제…….”

“…….”

“가요, 집에…….”

“오냐, 가야제. 니가 왔다 해서 다 챙겨 내려왔는기. 짐은 다 뎀한?”

“야.”

“느 숙모도?”

“야.”

아부제는, 나는 빈 몸으로 오고 아부제는 말을 가져왔으니 나는 차를 타고 내려가고 아부제는 내일 산에서 간조패들이 내려오면 돈을 마저 받은 다음 말을 끌고 내려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나도 아부제하고 함께 내려가겠다고 했다. 가방까지 들고 나왔는데도 그날 하루 더 영자 누나 방에서 잠을 잤다. 아부제는 어디서 잠을 잤는지 모른다. 다음 날 영자 누나가 출근한 다음 아부제가 말하던 대로 열 시쯤 진부옥으로 다시 갔을 때 아부제는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한 얼굴로 멀끔하게 앉아 있었다. 부엌 쪽을 살펴도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 “니 나하구 대화 가지 않으렌?”

“거긴 어딘데요?”

“차를 타든 된다. 거긴 여기보다 큰 전방들이 많으니 니 뭐 사구 싶은 것두 사구…….”

그날 아부제는 내게 시계를 사 주었다. 내가 고른 것보다 아부제 마음에 드는 게 더 비쌌는데 비싼 그것을 사 주었다. 큰 형은 시계가 있어도 고등학교 3학년인 작은형은 아직 시계가 없었다. 라디오를 틀면 매시간 아홉 시를 알려드립니다, 열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는 오리엔트 야광 손목시계였다. 그 외에도 내 옷과 숙모 옷 몇 가지를 더 사고, 할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의 옷가지도 샀다. 그리고 거기서 먹는 점심은 내가 내 식대로 아부제 것과 내 것을 시켜 먹었다. 아부제한테 내가 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봉평으로 돌아오니 해가 저물고 있었다. 아부제는 진부옥에서 돈만 받으면 떠날 준비를 하고 흥정산 간조패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저녁을 먹은 다음에 내려왔다.

㉢ “야, 느들 잠래 우리 집 대주 봐라. 우리 아들 얼굴 얼마

나 흰한가 한번 보란 말이다. 느 아들들이면 이만한 나이에 혼자 애비 찾아오겠나?”

아부제는 그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은 다음 길을 떠나기 전 몇 잔 술을 마시며 연신 내 자랑을 했다.

(중략)

“나 내려가면 이제 아부제 집에 가서 살려구 해요.”

“우리 집에?”

“야.”

㉣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구 시키든?”

“아뇨, 지 마음으료요.”

“니 마음으료?”

“야, 그래서 올라올 때 하생골 어머니한테 내 방 하나 치워놓으라고 했어요.”

“수호야.”

“야.”

“아부제는 고맙다, 무슨 말인 줄 알제?”

“야.”

㉤ “그래, 내려가든 나두 이 짐승 치우지 뉘. 니 싫어하는 걸 계속할 게 뭐 있젠.”

“…….”

“허, 이놈이 말귀 알아듣나, 절 치운다니까 대가리를 흔들게.”

“안 치워도 나 아부제 집에 가 살아요. …….”

“그래, 치우지 뉘. 치울 거야. 이제 이거 힘두 제대루 못 써 사람 망신시키는 거, 늙어서 고집두 늘구…….”

그날 아부제와 나는 온 하늘과 온 산이 붉게 동틀 무렵 하생골 집에 닿았다. 그러나 그날 밤길에도 그랬고, 먼저 살던 집에서 아부제 집으로 살림을 옮기듯 책상과 책가방, 입던 옷가지들과 내가 쓰던 물건들을 옮겨 온 후에도 끝내 말과는, 그리고 아부제가 그것을 끄는 것과는 화해가 되지 않았다. 예전보다 덜 부끄럽다고 해도 그랬다. 그때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동네에서 아이들과 싸우다가도 ‘노새집 양재새끼’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으로 느끼던 열세 살의 소년이었다.

그 말은 내가 중학교 3학년일 때까지 집에 있었다. 내가 저를 꺾박하고 서러움 줄 때 그는 이미 늙어 있었다. 그가 죽던 마지막 모습도 그랬다. 말굽을 박았는데도 공사장에서 벽돌을 내릴 때 땅에서 바로 선 대못을 밟아 오른쪽 앞다리부터 못 쓰게 되더니 한 해 겨울을 한쪽 다리를 늘 구부린 채 서서 앓다가 어느 날 배를 땅에 대고 만 것이었다. 알려진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시내의 마부들이 마차를 끌고 와 죽은 그를 싣고 내려갔다. 아부제는 따라가지 않았다. 마부들이 그럼 저녁때 고기라도 보낼까, 하고 묻자 아부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남몰래 감추는 아부제의 눈물을 보았다. 한지붕 아래에서 사는 동안 그는 내게 참으로 많은 설움과 눈총과 미움을 받았다. 내가 누리 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는데도 그랬다. 아마 그가 죽어 정말 하늘의 은별이 되었다 해도 나는 앞으로도 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 원고에 나는 그의 이야기를 쓰지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그의 슬픈 생애에 대해 제대로 글을 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린다.

- 이순원, 「말을 찾아서」 -



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어머이'의 부탁으로 '아부제' 집에 가서 살기로 결심한다.
- ② '나'는 '아부제'와 함께 떠나기 위해 봉평에서 하룻밤을 더 묵기로 한다.
- ③ '아부제'는 대화에서 '나'와 점심을 지켜 먹으며 고마움에 눈물을 흘린다.
- ④ '아부제'는 '나'가 봉평에 온 사실을 '나'와 대면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한다.
- ⑤ '아부제'는 힘을 못 쓰는 말 때문에 강릉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예상하지 못했던 호칭을 갑작스럽게 듣게 되어 선뜻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② ㉡: 큰 전방들이 많이 있는 '대화'에 가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사 주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다.
- ③ ㉢: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장래 우리 집 대주'라고 밝히며 자신에게도 남에게 내세울 아들이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 ④ ㉣: '나'의 결정이 '어른들'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⑤ ㉤: '이 짐승'에 대한 '나'의 진짜 속마음을 파악하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의도적으로 꺼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말을 찾아서」는 '나'를 양자로 들이고자 하는 당숙과 이를 거부하는 '나'가 갈등을 빚다가 화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른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양자 입양에 반발하였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당숙은 집을 떠나 버린다. 죄책감을 느낀 '나'는 당숙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를 '아부제'로 받아들이지만 노새와 당숙의 노새 끄는 일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어린 시절의 이와 같은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상처로 남게 되며 '나'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

- ① 당숙의 집으로 '내가 쓰던 물건들을 옮겨 온' 것은 '나'가 양자 입양을 수긍하고 당숙과 화해했음을 보여 주는 행동이겠군.
- ② '아부제가 그것을 끄는 것'과 '노새집 양재새끼'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양자가 된 후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겠군.
- ③ 당숙의 양자가 된 다음에도 노새에게 '많은 설움과 눈총과 미움'을 준 것은 '나'가 '노새'와 관련된 당숙의 삶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④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다고 여기는 것은 '노새'의 희생으로 인해 '나'가 당숙을 '아부제'로 받아들일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성인이 되어서도 '나'가 원고에 '그의 이야기를 쓰지 못'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기 때문이겠군.



<보 기>

「말을 찾아서」는 '나'를 양자로 들이고자 하는 당숙과 이를 거부하는 '나'가 갈등을 빚다가 화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른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양자 입양에 반발하였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당숙은 집을 떠나 버린다. 죄책감을 느낀 '나'는 당숙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를 '아부제'로 받아들이지만 노새와 당숙의 노새 끄는 일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어린 시절의 이와 같은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상처로 남게 되며 '나'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

✓ 읽기 전 활동

이후 등장할 소설이 '나'를 양자로 들이고자 하는 당숙과 이를 거부하는 '나'의 갈등이 드러나고, 그 이후 화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소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숙과 화해하고 그를 아부제라 부르게 되었음에도 '나'는 당숙이 노새를 끄는 것과 그 노새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는 '나'에게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상처로 남으며 죄책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부제…….”

나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강릉에서 올라올 때부터 내내 입속으로 되뇌며 연습한 말이었다.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라는 뜻을 불러야 하고, 이젠 당숙을 그렇게 불러야 하고 그렇게 불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아부제가 놀라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부제…….”

“…….”

“지가 잘못했어요.”

“언, 언제 완?”

“어제요. 어머니가 아부제 모시고 오라고 해서요.”

“…… 밥은 먹은?”

“야, 내일 온다더니요?”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 편에 니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잔.”

“진지는 드셨어요?”

“거기서 먹기는 해두 니가 뭘 안 먹었음 같이 먹을까구…….”

“말은요?”

“뒤꼍에 매났는기 이젠 그것두 힘을 못 써서…….”

“아부제…….”

“…….”

“가요, 집에…….”

“오냐, 가야제. 니가 왔다 해서 다 챙겨 내려왔는기. 집은 다 쉰한?”

“야.”

“느 숙모도?”

“야.”

아부제는, 나는 빈 몸으로 오고 아부제는 말을 가져왔으니 나는 차를 타고 내려가고 아부제는 내일 산에서 간조페들이 내려오면 돈을 마저 받은 다음 말을 끌고 내려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나도 아부제하고 함께 내려가겠다고 했다. 가방까지 들고 나왔는데도 그날 하루 더 영자 누나 방에서 잠을 잤다. 아부제는 어디서 잠을 잤는지 모른다. 다음 날 영자 누나가 출근한 다음 아부제가 말하던 대로 열 시쯤 진부옥으로 다시 갔을 때

아부제는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한 얼굴로 멀끔하게 앉아 있었다. 부엌 쪽을 살피도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보기>에서 언급했듯 양자 입양에 반발했던 '나'와의 갈등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 집을 나간 당숙과 '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낀 '나'는 당숙과 화해하기 위해 당숙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나'는 당숙을 '아부제'라 부르며 당숙을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인정하며 아부제와 화해하고, 같이 집으로 가자 합니다. '나'는 이렇게 화해를 한 후 먼저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간조페들에게 돈을 마저 받아야 하는 아부제를 기다려 하루 더 있다가 다음날 내려가기로 합니다. 이후 '나'와 아부제가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며 읽어 나가야 합니다.

“니 나하구 대화 가지 않으렌?”

“거긴 어딘데요?”

“차를 타든 된다. 거긴 여기보다 큰 전방들이 많으니 니 뭐 사구 싶은 것두 사구…….”

그날 아부제는 내게 시계를 사 주었다. 내가 고른 것보다 아부제 마음에 드는 게 더 비쌌는데 비싼 그것을 사 주었다. 큰 형은 시계가 있어도 고등학교 3학년인 작은형은 아직 시계가 없었다. 라디오를 틀면 매시간 아홉 시를 알려드립니다, 열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는 오리엔트 야광 손목시계였다. 그 외에도 내 옷과 숙모 옷 몇 가지를 더 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의 옷가지도 샀다. 그리고 거기서 먹는 점심은 내가 내 식대로 아부제 것과 내 것을 시켜 먹었다. 아부제한테 내가 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봉평으로 돌아오니 해가 저물고 있었다. 아부제는 진부옥에서 돈만 받으면 떠날 준비를 하고 흥정산 간조페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저녁을 먹은 다음에 내려왔다.

“야, 느들 장래 우리 집 대주 봐라. 우리 아들 얼굴 얼마나 흰환가 한번 보란 말이다. 느 아들들이면 이만한 나이에 혼자 애비 찾아오겠나?”

아부제는 그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은 다음 길을 떠나기 전 몇 잔 술을 마시며 연신 내 자랑을 했다.

(중략)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아부제와 다음날 만난 ‘나’는 아부제가 ‘대화’를 가자는 말에 따라나섭니다. ‘대화’에서 아부제는 ‘나’에게 작은형에게조차 없는 시계를 사주는데, 이는 아부제가 ‘나’에게 화해의 의미로 준 선물로, 아부제가 그만큼 ‘나’를 좋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또한 ‘내가 컸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자신의 식대로 아부제와 자신의 것을 시켜 먹습니다. 이렇게 시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둘은 봉평으로 돌아오는데, 앞서 말했던 ‘간조패들이 오기를 기다’려 돈을 받은 아부제는 자신의 아들이 된 ‘나’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아부제의 모습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내려가면 이제 아부제 집에 가서 살려구 해요.”
 “우리 집에?”
 “야.”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구 시키든?”
 “아뇨, 저 마음으로요.”
 “니 마음으로?”
 “야, 그래서 올라올 때 하생골 어머니한테 내 방 하나 치워놓으라고 했어요.”
 “수호야.”
 “야.”
 “아부제는 고맙다, 무슨 말인 줄 알제?”
 “야.”
 “그래, 내려가면 나두 이 짐승 치우지 뭐. 니 싫어하는 걸 계속할 게 뭐 있겐.”
 “.....”
 “허, 이놈이 말귀 알아듣나, 절 치운다니까 대가리를 흔들게.”
 “안 치워도 나 아부제 집에 가 살아요,”
 “그래, 치우지 뭐. 치움 거야. 이제 이거 힘두 체대루 못 써 사람 망신시키는 거, 늙어서 고집두 늘구.....”
 그날 아부제와 나는 온 하늘과 온 산이 붉게 동틀 무렵 하생골 집에 닿았다. 그러나 그날 밤길에도 그랬고, 먼저 살던 집에서 아부제 집으로 살림을 옮기듯 책상과 책가방, 입던 옷가지들과 내가 쓰던 물건들을 옮겨 온 후에도 끝내 말과는, 그리고 아부제가 그것을 끄는 것과는 화해가 되지 않았다. 예전보다 덜 부끄럽다고 해도 그랬다. 그때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동네에서 아이들과 싸우다가도 ‘노새집 양재새끼’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으로 느끼던 열세 살의 소년이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이렇게 아부제와 화해한 ‘나’는 이제 아부제의 집에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뜻을 밝히고, 아부제는 이에 기뻐하며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때 아부제는 ‘나’가 싫어하는 노새를

치우고자 하는데, ‘나’는 노새를 치우지 않아도 아부제와 같이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가 노새를 싫어하는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는데, ‘끝내 말과는, 그리고 아부제가 그것을 끄는 것과는 화해’를 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나’는 중학교 1학년때 ‘노새집 양재새끼’라는 말을 가장 큰 욕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노새와 그 노새를 끄는 아부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중학교 3학년일 때까지 집에 있었다. 내가 저를 폄박하고 서러움 줄 때 그는 이미 늙어 있었다. 그가 죽던 마지막 모습도 그랬다. 말굽을 박았는데도 공사장에서 벽돌을 내릴 때 땅에서 바로 선 대못을 밟아 오른쪽 앞다리부터 못 쓰게 되더니 한 해 겨울을 한쪽 다리를 늘 구부린 채 서서 앓다가 어느 날 배를 땅에 대고 만 것이었다. 알리진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시내의 마부들이 마차를 끌고 와 죽은 그를 싣고 내려갔다. 아부제는 따라가지 않았다. 마부들이 그림 저녁때 고기라도 보낼까, 하고 묻자 아부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남몰래 감추는 아부제의 눈물을 보았다. 한지붕 아래에서 사는 동안 그는 내게 참으로 많은 설움과 눈총과 미움을 받았다.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는데도 그랬다. 아마 그가 죽어 정말 하늘의 은별이 되었다 해도 나는 앞으로도 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 원고에 나는 그의 이야기를 쓰지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그의 슬픈 생애에 대해 제대로 글을 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린다.

-이순원, 「말을 찾아서」-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나’가 싫어하던 말은 중학교 3학년일 때 죽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내릴 때 못을 밟아 다리를 못쓰게 되었고, 그렇게 앓다가 어느 날 ‘배를 땅에 대고’ 죽게 됩니다. 이때 죽은 말을 데리고 가던 마부들이 고기를 줄지 물어보지만 아부제는 거절하고,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남몰래 흘립니다. 이러한 아부제의 태도를 보아 앞서 ‘나’가 싫어하는 말을 치우겠다고는 했으나, 사실은 말을 매우 아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부제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말을 미워했던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며 이러한 말을 좋아했던 아부제에게도 ‘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던 ‘나’는 언젠가는 이렇게 말을 좋아했던 아부제의 삶에 대해 제대로 글을 쓸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작품 총평

‘말’, 그리고 그 말을 아끼던 ‘당숙’, 말을 싫어하던 ‘나’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보



기>에서 설명해주기 때문에 <보기>를 제대로 해석했다면 '나'가 당숙과 화해하는 장면부터 글이 시작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소설의 해석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②

① '나'는 '어머이'의 부탁으로 '아부제' 집에 가서 살기로 결심한다.

→ '나'는 '어머이'의 부탁으로 '아부제'를 데리러 왔으나, '아부제'의 집에서 살기로 결심한 것은 '지 마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② '나'는 '아부제'와 함께 떠나기 위해 봉평에서 하룻밤을 더 묵기로 한다.

→ '나'는 '간조패들이 내려오면 돈을 마저 받은 다음 말을 끌고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아부제'와 함께 떠나기 위해 봉평에서 하룻밤을 더 묵기로 합니다.

③ '아부제'는 대화에서 '나'와 점심을 시켜 먹으며 고마움에 눈물을 흘린다.

→ '아부제'가 대화에서 '나'와 점심을 시켜 먹으며 보인 반응은 글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아부제'가 눈물을 흘리는 사건은 말이 죽었을 때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오답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④ '아부제'는 '나'가 봉평에 온 사실을 '나'와 대면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한다.

→ '아부제'는 '나'가 봉평에 온 사실을 '여계서 들어오는 사람 편에 니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잔'이라며 미리 알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⑤ '아부제'는 힘을 못 쓰는 말 때문에 강릉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다.

→ '아부제'가 강릉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는 '나'와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부제'가 강릉을 떠나 봉평에 있었던 이유는 '나'와의 갈등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므로 갈등이 끝난 상황에서 봉평에 더 이상 남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힘을 못 쓰는 말 때문에 강릉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

㉡ "니 나하구 대화 가지 않으렌?"

㉢ "야, 느들 장래 우리 집 대주 봐라. 우리 아들 얼굴 얼마나 흰나가 한번 보란 말이다. 느 아들들이면 이만한 나이에 혼자 애비 찾아오겠나?"

㉣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구 시키든?"

㉤ "그래, 내려가몬 나두 이 짐승 치우지 뭐. 니 싫어하는 걸 계속할 게 뭐 있겐."

① ㉠: 예상하지 못했던 호칭을 갑작스럽게 듣게 되어 선뜻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아버지'라는 뜻을 불러야 하고, 이젠 당숙을 그렇게 불러야 하고 그렇게 불러야 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는 당숙을 아부제로 부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부제는 '나'가 자신을 '아부제'라고 부를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고, 이러한 호칭을 갑작스럽게 듣게 되어 선뜻 대응하지 못합니다.

② ㉢: 큰 전방들이 많이 있는 '대화'에 가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다.

→ 대화에는 '여기보다 큰 전방들이 많으니 니 뭐 사구 싶은 것두 사구'라며 같이 대화로 가자는 '아부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부제가 '나'와 화해했기 때문에 화해를 기념할 겸 '나'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③ 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장래 우리 집 대주'라고 밝히며 자신에게도 남에게 내세울 아들이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장래 우리 집 대주'라고 밝히며 '이만한 나이에 혼자 애비 찾아'온 '나'를 대견스러워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④ ㉔: '나'의 결정이 '어른들'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나'의 '아부제 집에 가서 살'겠다는 결정이 '어른들'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 마음으로' 아부제 집에서 살겠다고 말하는 '나'의 말에 '니 마음으로?'라고 물으며 '나'가 자신과 살고자 한다는 사실을 쉽사리 믿지 못하는 '아부제'의 모습에서 이러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㉔: '이 짐승'에 대한 '나'의 진짜 속마음을 파악하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의도적으로 꺼내고 있다.

→ '이 짐승'에 대한 '나'의 진짜 속마음이 '이 짐승'을 싫어하는 것임을 이미 '아부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니 싫어하는 걸 계속할 게 뭐 있겐'이라며 이야기하는 '아부제'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부제'가 이렇게 마음에 없는 말을 꺼내는 이유는 '나'가 같이 살기로 했기 때문에 혹시나 말 때문에 자신과 같이 사는 것을 싫어할까 걱정되어 꺼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④

<보 기>

「말을 찾아서」는 '나'를 양자로 들이고자 하는 당숙과 이를 거부하는 '나'가 갈등을 빚다가 화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른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양자 입양에 반발하였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당숙은 집을 떠나 버린다. 죄책감을 느낀 '나'는 당숙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를 '아부제'로 받아들이지만 노새와 당숙의 노새 끄는 일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어린 시절의 이와 같은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상처로 남게 되며 '나'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

① 당숙의 집으로 '내가 쓰던 물건들을 옮겨 온' 것은 '나'가 양자 입양을 수긍하고 당숙과 화해했음을 보여 주는 행동이겠군.

→ 당숙의 집으로 '내가 쓰던 물건들을 옮겨 온' 것은 '나'가 양자 입양을 수긍하고 '아부제 집에 가서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숙과 '나'가 화해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② '아부제가 그것을 끄는 것'과 '노새집 양자새끼'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양자가 된 후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겠군.

→ '아부제가 그것을 끄는 것'과는 화해를 하지 못했다는 '나'의 생각으로 보아, '나'는 여전히 '아부제'가 말을 끄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노새집 양자새끼'를 가장 심한 욕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아 '나'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당숙의 양자가 된 다음에도 노새에게 '많은 설움과 눈총과 미움'을 준 것은 '나'가 '노새'와 관련된 당숙의 삶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음을 보여 주는군.

→ 당숙의 양자가 된 다음에도 노새에게 '많은 설움과 눈총과 미움'을 준 것은 '나'가 당숙과는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새'를 끄는 것과는 화해를 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④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다고 여기는 것은 '노새'의 희생으로 인해 '나'가 당숙을 '아부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군.

→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다고 여기는 것은 '나'에게 노새에게 죄책감을 품게 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다고 여기는 것은 '노새'에게 느끼는 죄책감과 관련된 것이지, '노새'의 희생으로 인해 '나'가 당숙을 '아부제'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⑤ 성인이 되어서도 '나'가 원고에 '그의 이야기를 쓰지 못'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기 때문이겠군.

→ 어린 시절의 경험이지만, '말'과 '아부제'를 부끄러워했던 경험은 여전히 '나'에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적절한 선지로 볼 수 있습니다.